

大藏法數十三에

「三魂亦云三精，道書云身中三精，一白光，二爽靈，三幽精。」

이라하고 玉經에

「三種魂義，一名胎光，業魂神識。二名幽精，轉魂神識。三名相靈，現魂神識。於阿賴識，明爲三魂。」

이라하였스니 前과對比하면 台是胎光 爽을相으로 換書할것이니라 二와三을相換하여 八識三分에 配對하였스니 即衆生の生前에잇는 業相·轉相現 相의八識三細가 그死後에는 業魂·轉魂·現魂이 되는데 그名字가胎光·幽精·相靈으로된다는말이

나 이玉經은僞撰이라하고는되던즉 遵信할수업지마는 三魂이잇다면 三細의異名일것은 容認할 수잇게업스며 靈發七靈에

「爽靈延年，胎光益祿，幽精絕死。」

이라하고 太微靈書에

「常呼念其名則人身安魂也。」라하고 玉樞經三精九靈章에

「身中三精，何不召之，一曰白光，二曰爽靈，三曰幽精，召之則吉。」

이라한것이 即是自己의身中에잇는 三魂을恒常收攝하여 邪道에放逸이업게하라는것입니다 그리고 七魂으로말하면 金丹正理에

「至道不煩決存真 泥丸百節皆有神」

이라한것에 人身中의神名을列舉호되

「神名最多·莫能枚舉·身中有三部·上部八景·髮神·胸神·眼神·鼻神·耳神·口神·舌神·齒神·中部

八景·肺神·心神·肝神·脾神·左腎神·右腎神·臍神·喉神·下部八景·腎神·大腸神·小腸神·胃神·膈神·兩脇神·左陽神·右陰神·身中有九宮

眞人(心緣宮眞人·腎丹元宮眞人·肝蘭臺宮眞人·肺尙書宮眞人·脾黃庭宮眞人·膽天靈宮眞人·小腸支靈宮眞人·大腸朱靈宮眞人·膀胱玉房宮眞人)又有元首九宮眞人(腦有九瓣·故頭有九宮·一曰

雙丹宮·二曰明堂宮·三曰泥丸宮·四曰流珠宮·五曰大帝宮·六曰天庭宮·七曰極眞宮·八曰玄丹宮·九曰

大泉宮)又有金樓·真門·十二亭長·身外有一萬八千陽神·身內有一萬八千陰神·所主者爲緣宮眞人

卽心主也·又有三身神·四智神·三魂神·七魄神·七元八識神·假名異字·難可悉數。」

라하고 그七魂神下에註하여曰

「尸狗·伏矢·雀淫·飛毒·天賊·除穢·臭師。」라하여 七魂의名目만을列舉할것이오 玉經에서 三魂을解釋한것과은文句는 잇을을보지못하겠고靈發七靈에

「第一魄名尸狗·二名伏矢·三名雀陰·四名吞賊·五名非毒·六名除穢·七名臭肺·此七魄之名 身中之濁鬼也」

라하였습니다 그리고 玉經中에 「陽神曰魂·陰神」 이라한文句를는 여의舊籍中에散見한것이 二種이아니나다 이제그數例를들전대

「陽神曰魂·陰神曰魄·魄之與魂·互爲宅室。」(泰同契)

「人生始化曰魄·既生魄·陽曰魂。」(禮記祭統)

「附形之靈爲魂·附氣之神魄。」(同註)

「魂氣歸於天·形魄歸於地。」(禮記郊特牲)

「魂者神也陽也氣也·魄者精也陰也形也。」(同註)

「天氣爲魂·地氣爲魄。」(淮南子)

「魂人陽神也·魄人陰神也。」(同高勝註)

「天地者陰陽之形魄·變化者萬物之遊魂。」(庚聞神

論)

「升魂爲貴·降魄如賤。靈魂爲貴·厲魄爲惡。揚魂爲羽·鈍魄爲毛。輕魂爲明·重魄爲暗。」(關尹子)

「人之魂陽而魄陰。」(天隱子)

「虎嘯天魂住·龍吟地魄來。」(天魂生白虎·地魄產青龍。)(呂洞賓詩)

「地魄天魂日月精·奪來鼎內及時烹。」(葛長庚詩)

「木精天魂·金液地魄。」(靈發七靈)

「魄是靈·魂是屍。」(諸經要集)

「主肝爲魂·主肺爲魄。」(同上)

已上의諸說를綜合하면 魂은清·明·輕·揚이오 魄은濁·暗·重·鈍한것이니諸經要集에이른바「魂是靈魄是屍」라는것이가장簡明합니다 그리고禮記祭統에

「宰我曰·吾聞鬼神之名·不知其所謂。子曰·氣也者神之靈也·魄也者鬼之靈也。……衆生必死·死必歸土·此之謂鬼·骨肉藏於下·陰爲野土·其氣發揚於上。……」

이라하여는諸家가此를註釋하여曰 「氣謂嘘吸出入者也·耳目之聰明爲魄。……陰讀爲依陰之陰·言人之骨內·藏於地中爲土壤。……」

(鄭康成注)

「神者陽之所爲，魄者陰之所爲也。首氣則知鬼之爲形，首魂則知氣之爲魂。魂亦神也，此止言氣者，以氣爲魂之本而魂非神之盛故也。形亦鬼也，此止言魄者，以形爲魄之本而形非鬼之盛也。以主其盛者故，止言氣魄而已。」(方慈註)

「魂亦神也，氣其盛者也。精亦鬼也，魄其盛者也。氣有升而已，魄有降而已。」(陸佃註)

「易曰：精氣爲物，遊魂爲變。物者其聚也，變者其散也。郊特牲謂魂氣歸於天，形魄歸於地。歸於天者知氣升自上也，歸於地者體魄降自下也。聚散者天之道，故精氣猶謂之物。升降者人之道，故氣魄亦謂之神。蓋魂與氣，無不之，無不在，則爲神之盛。體與魄，有所歸，有所化，故爲鬼之盛。」(葉夢得註)

「氣者謂人之魂氣，死則其魂氣之靈爲神。魄謂人之體魄，死則轉魄之靈爲鬼。」(吳澄註)

「魂者氣之神，有清有濁，口鼻之所以呼吸者，呼爲陽伸，吸爲陰屈也。魄者精之神，有虛有實，耳目之所以視聽者，視爲陽明，聽爲陰鑿。」(性命圭旨)

魂魄圖題)

「神者精氣之化成也，魄者精氣之匡佐也，魂者神氣之輔弼也，意者記而不忘者也，志者專意而不移者也。」(黃帝內經註)

「兩精相薄謂之神，隨神往來謂之魂，並精出入謂之魄，心有所憶謂之意，意之所存謂之志，因慮而處物謂之智也。」(靈樞)

「凡夢，皆緣魂魄役物。」(類聚)

「形接而爲事，神遇而爲夢。」(同上)

「心，實則夢可慮可驚可怪之事，虛則魂魄飛揚紛紜多夢。」(醫學入門)

하게 습니다

「以魂運魄」은 卽身爲心役이오 「以魄攝魂」은 卽心爲身役이니 그 것을 凡聖의 異處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凡聖의 源委又是 分岐點이라고는 할 수 있스며 「因精有魂」云云은 卽不通五行相生之說입니다 黃帝內經에

「心藏神，肺藏魄，肝藏魂，脾藏意，腎藏志。」
「脾藏意與智，腎藏精與志，是爲七神。」(同上)
「肝爲木藏，心爲火藏，脾爲土藏，肺爲金藏，腎爲水藏。」(同上)

五行, 金↓水↓木↓火↓土↓金
五臟, 肺↓腎↓肝↓心↓脾↓肺
五神, 魄↓精↓魂↓神↓意↓魄

이러한 것이 「運行不已」 無有窮極이라 하고 또한 하가지 이리 한 것이 「運行不已」 無有窮極이라 하고 또한 하가지 오 「魂，晝高目。」이라 함은 目이 肝에 屬한 자라 함이며 「魄，夜舍肝。」이라 함은 魂消魄濁하야 不與物接할 때에는 오즉 魂만이 升揚하고 魄은 潛伏됨으로 肝에 舍한 다 함이니 그 所屬을 各配하면 「魂在肝 魄在肺」이라 하는 그 動作에 是한 것이 魂魄이 相須하

는 것이 습니다

「神者精氣之化成也，魄者精氣之匡佐也，魂者神氣之輔弼也，意者記而不忘者也，志者專意而不移者也。」(黃帝內經註)

「兩精相薄謂之神，隨神往來謂之魂，並精出入謂之魄，心有所憶謂之意，意之所存謂之志，因慮而處物謂之智也。」(靈樞)

「凡夢，皆緣魂魄役物。」(類聚)

「形接而爲事，神遇而爲夢。」(同上)

「心，實則夢可慮可驚可怪之事，虛則魂魄飛揚紛紜多夢。」(醫學入門)